



중기적인 분기점에 도달한 시장

Why This Report

KOSPI가 6월 급락 후 7월에는 강하게 반등했지만 결국 120일 이평선의 저항을 넘지 못하고 단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횡보 과정에서 120일 이평선은 지지대로 작용하거나 이탈하면 바로 회복했는데,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시점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단기간에 120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중기적인 흐름이 하방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간 조정 과정에서 120일 이평선을 회복한다면 상승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 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KOSPI,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 확인

- 지난 8월 2일 중기 고점이 120일 이평선 수준에서 형성
- 작년 하반기 이후 120일 이평선은 지지대로 작용하거나 이탈해도 바로 회복했는데 저항으로 자리잡은 점은 부담. 이는 매도세가 강해지는 모습으로 회복 실패가 확인되면 조정 폭 확대 전망
- 단기 조정 통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간 조정 과정 거치고 120일 이평선 돌파에 성공하면 상승국면 이어질 가능성 높음. 이 경우 2,000pt 수준까지도 상승 가능
- 만약 단기 반등에 실패하거나 기간 조정 과정에서 120일 이평선 회복에 실패하면 월봉상 60개월 이평선 수준까지 조정 폭 확대 가능

업종별 지수도 대부분 저항대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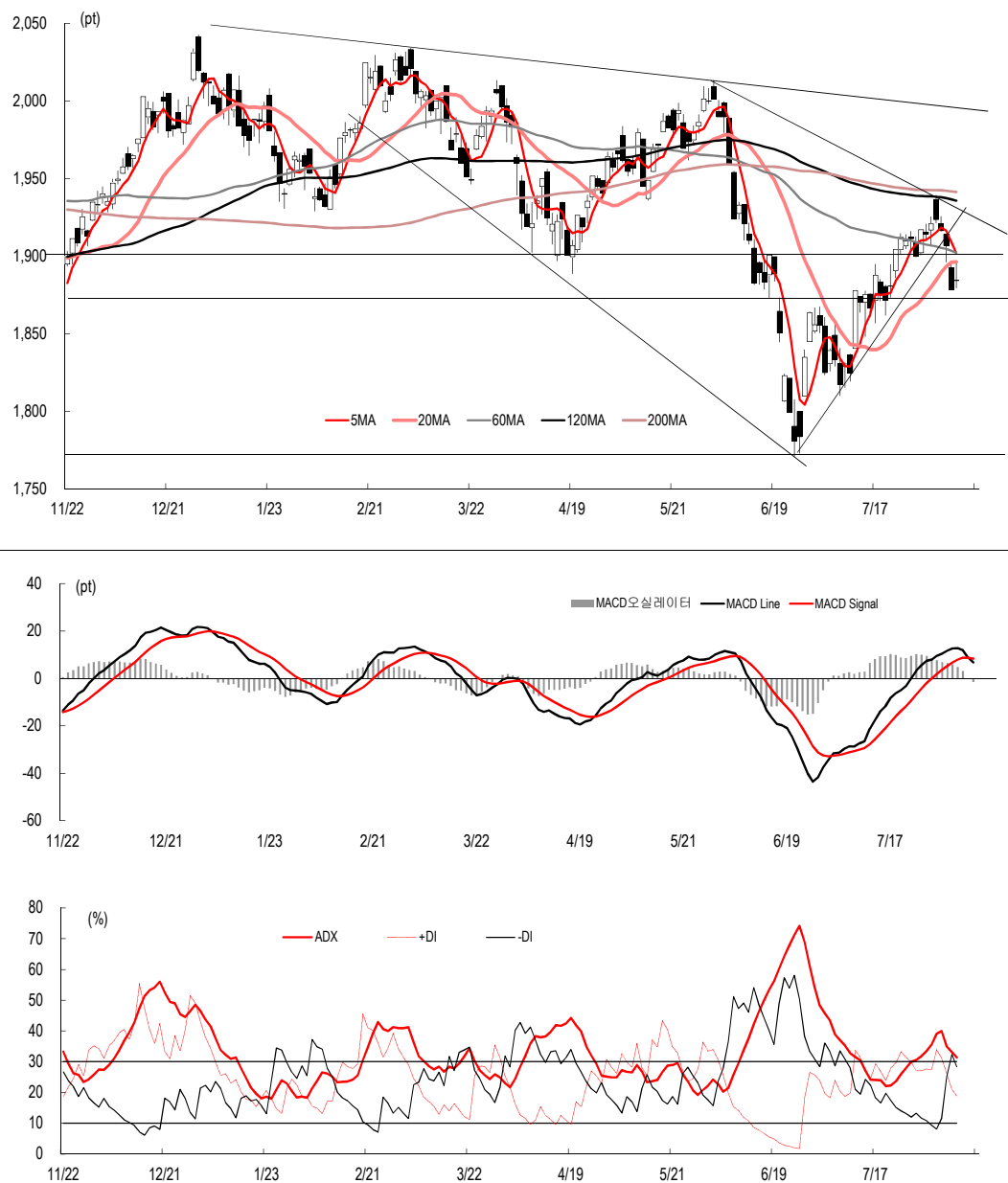
- 화학 업종지수는 3,950pt 수준의 저항에서 탄력이 둔화. 이 가격대는 2011년 이후 중요한 지지 저항대로 작용한 가격대로 쉽게 돌파하기 어려운 저항대임
- 운송장비 업종지수도 2,550pt 수준의 저항대에 걸린 상황. 이 가격대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해 쉽게 돌파되기 어려울 전망
- 전기전자 업종지수는 120주 이평선의 지지대에 도달해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음. 만약 120주 이평선을 이탈하면 다시 조정 폭을 확대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상황

단기 반등에 실패하거나 반등해도 120일 이평선 넘지 못하면 위험관리 필요

- 7월 반등 120일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한 점은 부담
- 기간 조정 거치면서 120일 이평선 돌파하지 못하면 조정 폭 확대 국면 이어질 전망

KOSPI, 1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 확인

KOSPI 일봉, 5, 20, 60, 120, 200일 이동평균선, MACD, D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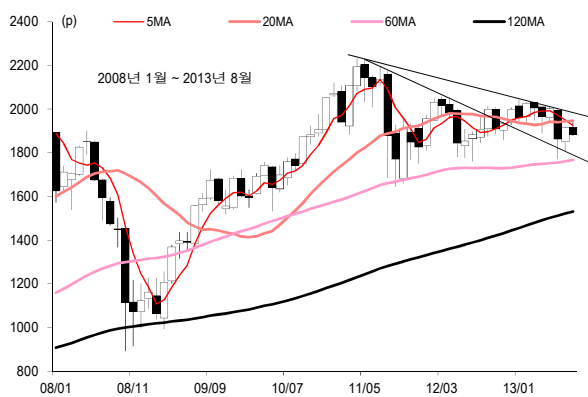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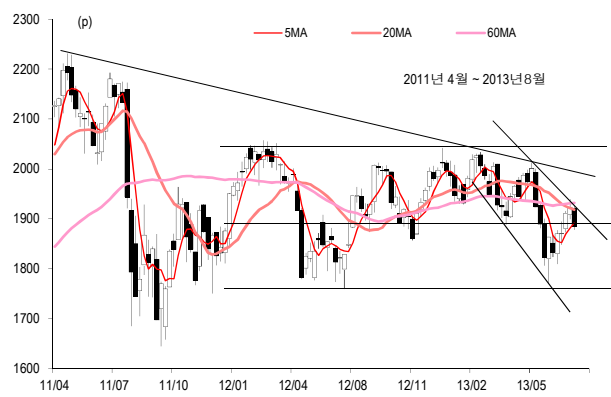
KOSPI 가 지난 2일 120일 이평선의 저항으로 사흘째 하락한 후 나흘만에 소폭 반등했다. 1,930pt 전후한 수준에 20일 이평선, 20, 60주 이평선 등 주봉, 월봉상의 중요한 저항대도 맞물려 쉽게 돌파되기 어려운 가격대였다. 최근 하락으로 6월 저점에서 그은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고, MACD(추세관련 보조지표)에서는 매도 신호가 발생해 단기적으로는 조정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KOSPI 월봉, 20 월 이평선 저항, 60 월 이평선 지지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주봉, 20, 60 주 이평선 저항으로 작용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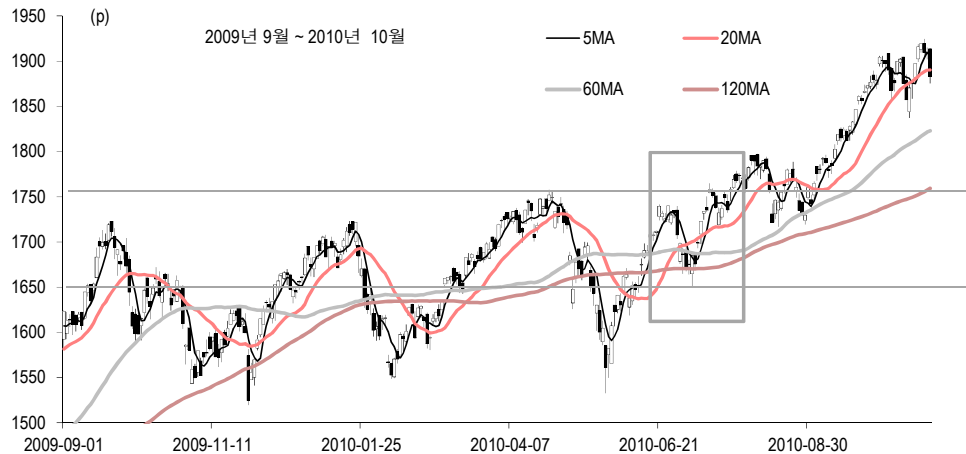
하락하는 120일 이평선에 주가가 처음 도달했을 때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런 모습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120일 이평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의 구조적인 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

작년 7월 이후 KOSPI 가 횡보국면으로 진행되면서 120일 이평선은 지지대로 작용해가다가 이탈되더라도 곧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지난 6월 급락으로 60일 이평선이 120일 이평선을 하회했고, 이들 이평선은 완만하나마 하락세로 전개되었다. 일반적으로 이평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등락하다가 해당 이평선이 저항으로 자리잡으면 매도세가 강해지는 것으로, 지지대가 되면 매수세가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해석된다.

후자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 상단에 표시된 2010년 7월의 사례이다. 2009년 9월부터 약 10개월 간 횡보국면이 이어지면서 120일 이평선 중심으로 등락하다가 2010년 7월에 지지대로 자리잡으면서 점차로 상승 추세로 전개되었다. 지금은 그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만약 궁극적으로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한다면 중기적으로 60일 이평선이 위치한 수준까지 하락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가격대에서는 다시 반등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60, 120일 이평선의 저항이 낮아져 반등 폭이 제한될 수 있다.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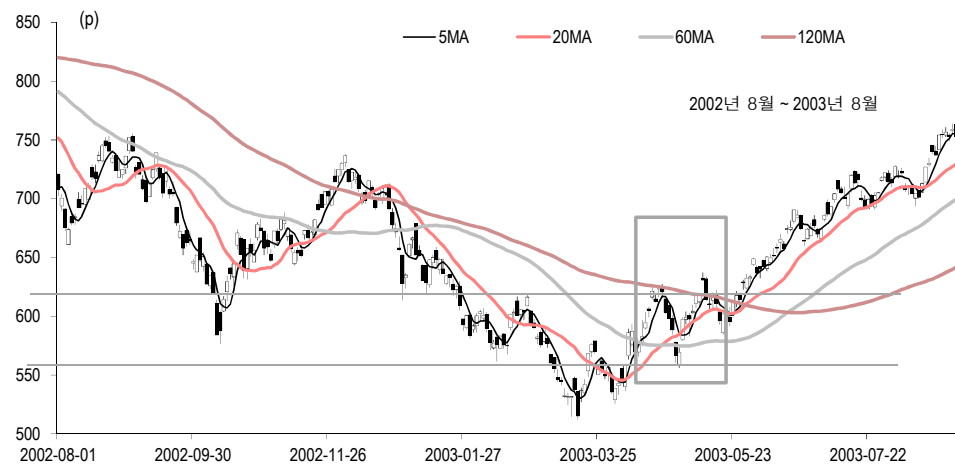
KOSPI 일봉, 120일 이평선 중심으로 등락하다가 상승 추세로 진행된 경우(2010년)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일 KOSPI 가 강한 반등으로 전개되지 못했지만 1,880pt 수준에 이전에 지지 저항대로 작용한 가격대의 지지가 존재해 반등 시도에 나섰다. 만약 여기서 좀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난다면 1,880 ~ 1,940pt 구간의 박스권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20일 이평선 돌파에 성공하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런 사례로 2003년 4, 5월에 형성된 아래 차트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반등에 성공해도 한 번에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과 수차례 돌파 시도가 있더라도 돌파에 실패한다면 결국 낙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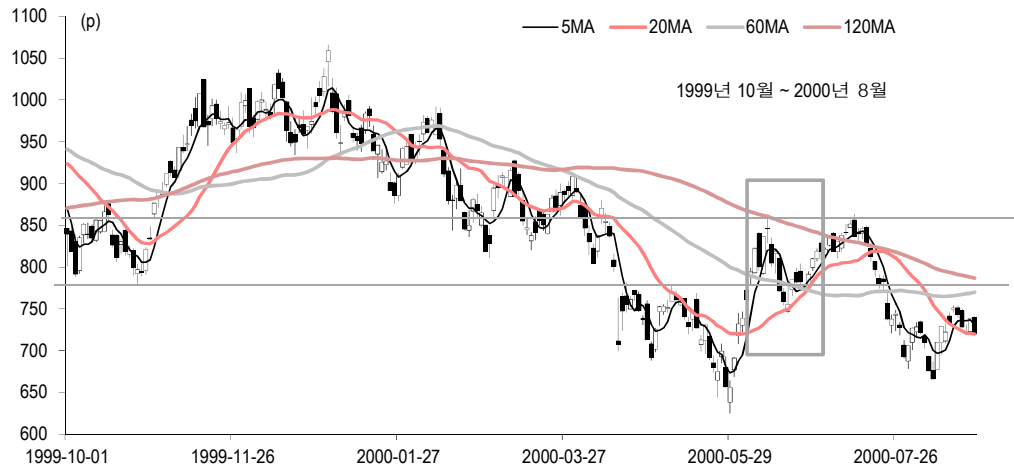
KOSPI 일봉, 120일 이평선 저항 돌파 시도에 성공한 경우(2003년)와 실패한 경우(2002년)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KOSPI 일봉, 120일 이평선 저항 돌파에 실패한 경우(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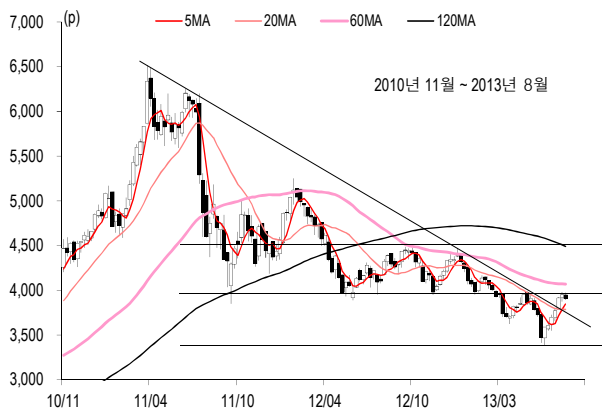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업종별 지수도 대부분 저항대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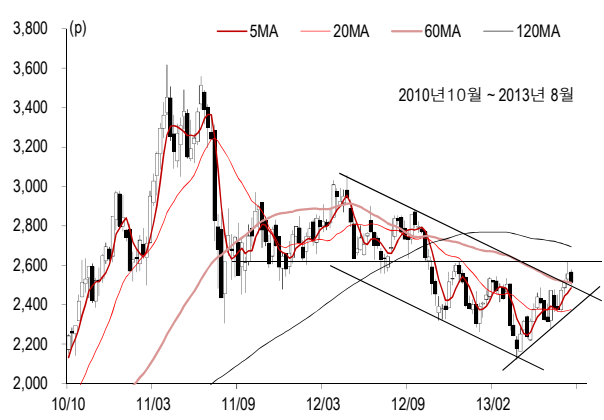
KOSPI가 120일 이평선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한 가운데 여타 주요 업종지수들도 저항대에 도달한 모습이다. 지난 7월에 강한 상승세를 형성했던 화학 업종지수는 3,950pt 수준의 저항에서 탄력이 둔화되었다. 아래 차트에서와 같이 이 가격대는 2011년 이후 중요한 지지 저항대로 작용한 가격대로 쉽게 돌파하기 어려운 저항대이다. 역시 강하게 상승했던 운송장비 업종지수도 2,550pt 수준의 저항대에 걸린 상황이다. 이 가격대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해 쉽게 돌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화학 업종지수 주봉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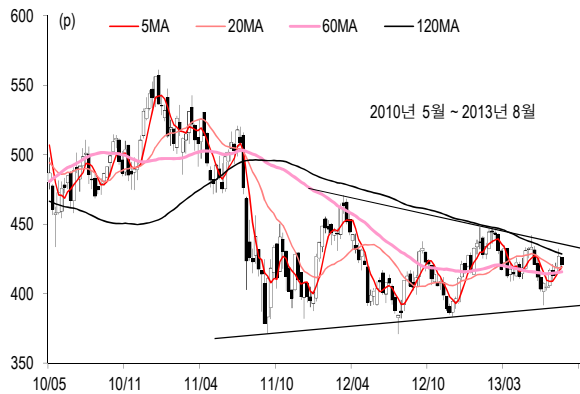
운송장비 업종지수 주봉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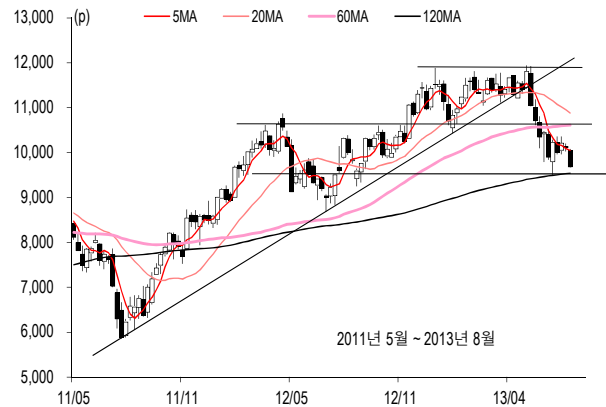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금융 업종지수 주봉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전기전자 업종지수 주봉



자료: 한국거래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업종지수 역시 주봉상 삼각형 패턴 상단선과 120주 이평선 등의 저항에 도달해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하방의 지지대도 높아지고 있고, 폭이 크지 않아 상승이 제한되더라도 강한 조정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전자 업종지수는 120주 이평선의 지지대에 도달해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120주 이평선을 이탈하면 다시 조정 폭을 확대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상황이다.

투자전략 : 단기 저점대 이탈 또는 120일 이평선 회복 실패 시 적극적 위험관리 필요

KOSPI 가 120일 이평선의 저항으로 하락한 점이 부담이다. 반등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120일 이평선 돌파에 성공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지만 돌파에 실패한다면 결국 60일 이평선 수준까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업종별로도 화학, 운송장비, 금융업종 등 주요 업종지수들은 중요한 저항대에 도달해 조정이 예상된다. 전기전자 업종지수의 경우 120주 이평선 지지에 근접해 반등 가능성 타진할 수 있지만 지지에 실패하면 추가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KOSPI 는 한번에 120일 이평선을 넘지 못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나야 상승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만약 단기 반등에 실패하고 하락세가 이어지거나 반등 과정에서 120일 이평선 돌파에 실패하면 적극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